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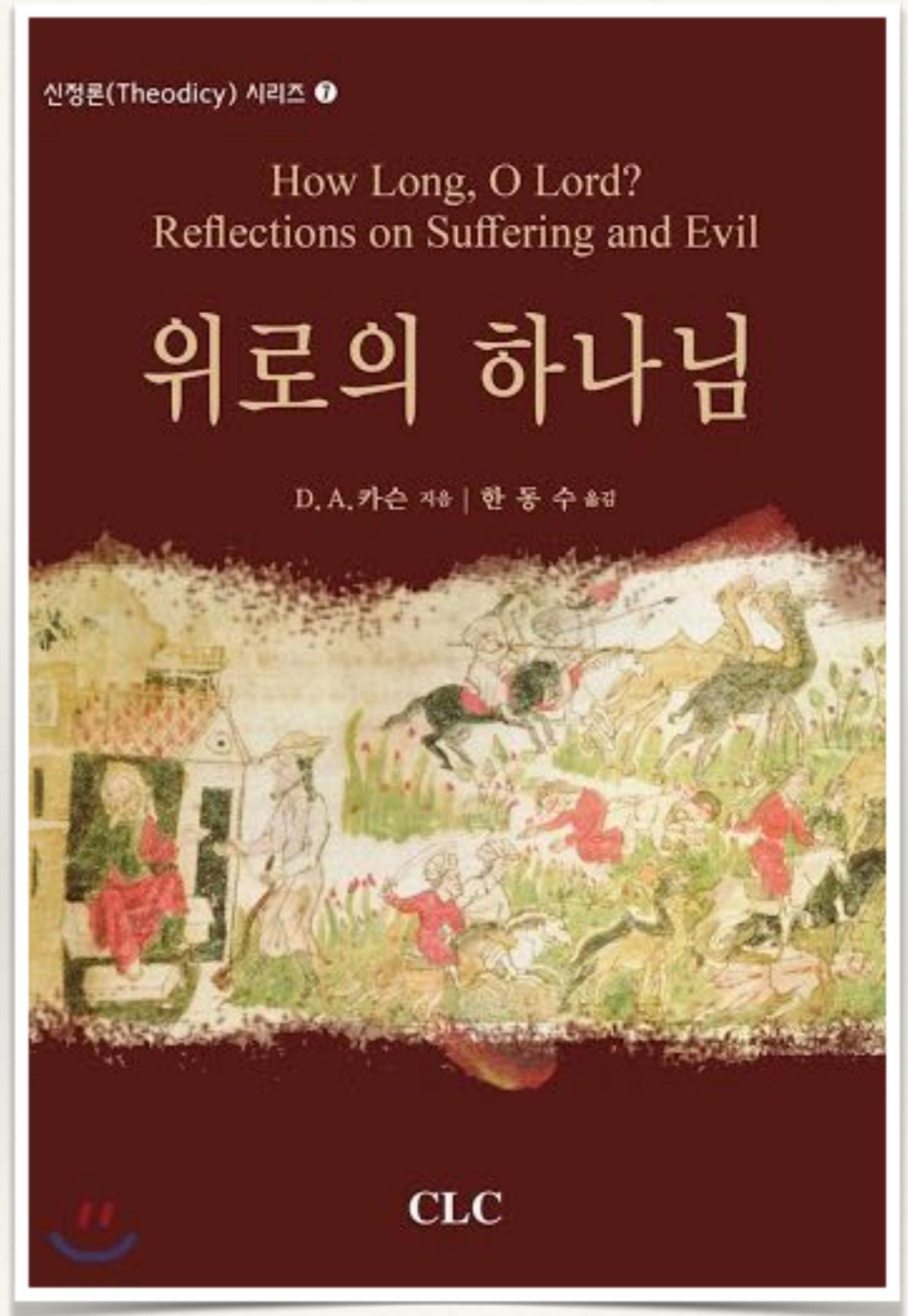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옫: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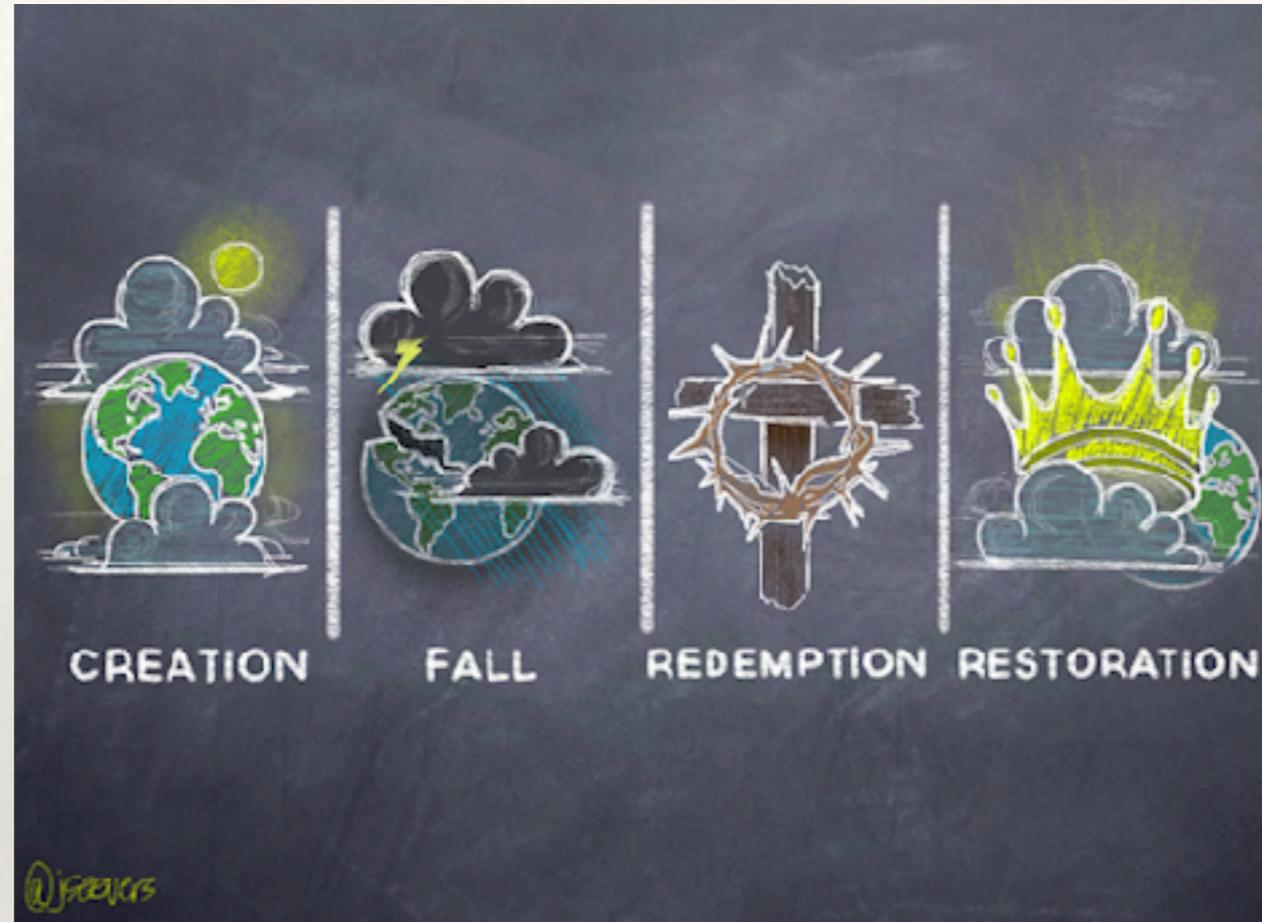


10주차 주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1.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2.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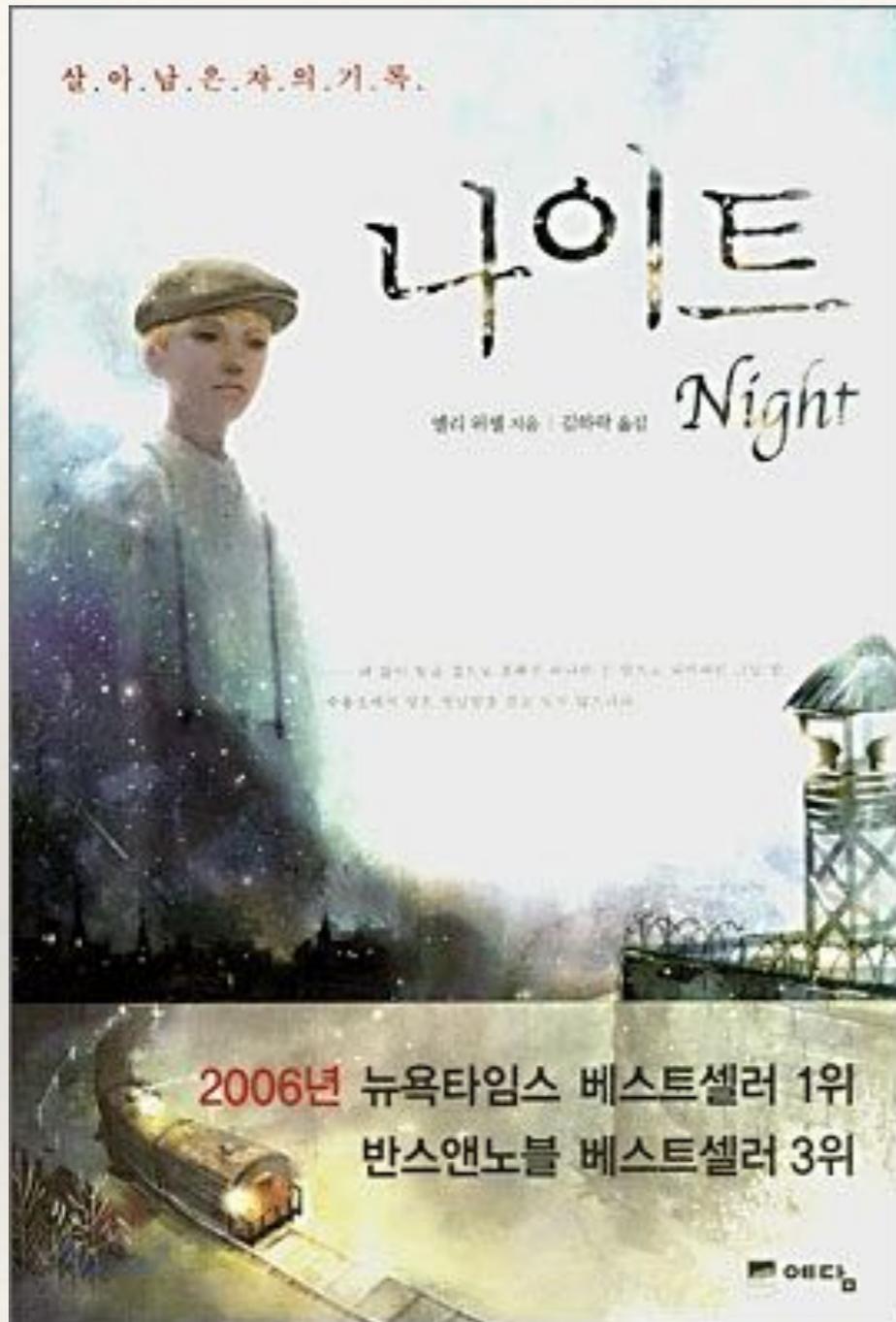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 10주차 주일성서연구



“이 책(욥기)이 정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악과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악과 고난은 어떤 그럴듯한 ‘해법’에 쉽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카슨, 241.

신명기적인 이해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사형수 세 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라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두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년은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소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워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
도 소년은 살아 있었다...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1.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 우리는 종종 공의로운 심판이 “그 사람에게” “즉시” “이 경우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행위와 모든 종류의 생각과 모든 진실한 말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주시고, 모든 악한 행위와 모든 더러운 생각과 모든 거짓된 말에 즉각적인 고통의 형벌을” 주시게 되는 것이다. 카슨, 290.

- 이것은 기계적인 차원의 인과응보이다.

“그렇게 강제적이고 무자비하게 ‘공의로운’ 징계 체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외적이고 냉담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헌신은 결코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카슨, 291.

1.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고, 내게 합당치 않은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맛보게 해 준 것도 이 행위, 곧 가장 ‘불공평한’ 행위다.” 카슨, 292.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롬 5:8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롬 3:25-26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후 5:19

2.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No Divine Impassibility.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렘 31:20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 11:8-9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사 33: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눅 19:41-42

2.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 12:24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 12:25-26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전 1:18-19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눅 19:41-42

10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익을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눔으로써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봅시다.

길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텃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